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0년 9월 뉴스레터 vol. 35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이 좋은 거 널리 알리자

채우고 배우고

내 슬픔에 절을 하고

장례 후기

한겨레두레와의 뜻 깊은 인연

특별 가고

내 어머니 간병일기

알쓸신잡

코로나19시대 장례사용설명서

숫자로 보는 채비

상조회사 신뢰도 인식 조사

채비 특강

내 몸 바르게 사용하기

이 좋은 거 널리 알리자



“안녕하세요?”

...라고 묻기 무색한 요즘입니다. 그나마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고 하늘이 높고 파래 위안이 되는군요.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 말씀 드렸듯이 협동조합은 공동의 필요와 열망을 ‘사업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상조회사의 분탕질과 장례문화의 폐해를 느낀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차린 거죠.

우리는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습니다.

첫째 미리 준비하기도, 효도라는 통념에서 자유롭기도 어려운 상주의 처지를 악용하여 온갖 명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상조회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둘째 본연의 사업은 뒷전인 채 고객 예치금을 온갖 위험사업에 투자해서 “벌면 내 돈, 잃으면 네 돈” 하는 놀부 심보 대형 상조회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게 세 번째인데요, 우리 내부에 뿌리 박힌 장례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조문객과 화환 개수로 효도와 추모의 정도를 계산하는 사회 관행, 엄청난 음식물과 일회용품 쓰레기, 여성은 상주가 못 되는 성차별적 장례 관습 등등 돈과 허례허식만 남고 품앗이와 추모는 사라진 장례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취약계층 장례를 제대로 치러 어떠한 죽음도 홀대하지 않는 문명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 네 가지 임무에 동의해서 가입한 거 맞지요?

이 임무는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연대와 협동으로 몸집을 불려야 합니다. 오륙백 명 정도 모이면 직원 두고 괜찮은 상조회사와 계약하여 바가지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네 가지 임무 중 오로지 첫 번째 임무, 즉 소비자로서 이익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 있다면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 목소리가 사회에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더 큰 규모로 협동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날 9개 회원 조합이 모여 한겨레두레연합회를 구성한 이유이며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임무를 자각한 조합원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좋은 것을 널리 알려시켜야 합니다.

한겨레두레가 얼마나 좋은지, 장례문화의 개선과 상조산업의 혁신이 얼마나 절실한지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상조회사들처럼 거액의 광고비나 모집수당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결국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일 뿐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믿고 협동하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 ‘Mystery shopper’를 운영하고 각종 소비자 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만든 회사이니 바로 이 점에서 자본주의 상조회사에 비해 월등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장례를 치러보니 무엇이 감동적이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세세히 알리고 부족한 점은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에서 장례문화 개선활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걸 협동조합의 특징점, ‘상호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셋째 민주적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즉각 반영되고 모여서 연합회에까지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결정이 민주화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집합되고 이견이 토론되며 타협과 절충으로 공동 행동을 만드는 시스템, 나는 반대했지만 공동으로 결정된 일은 함께 참여하는 사업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생업에 바빠 참석하진 못하더라도 이사회, 총회가 제대로 열리는지 회의록을 요구하고 애정 어린 쓴소리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은 폼이 아니라 사업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호성과 민주성이 잘 지켜지면 사업은 당연히 잘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거나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설사 나이, 직업, 학력이 다 다르더라도 함께 하는 목표가 있고 비슷한 필요와 열망을 갖고 있다는 동질 의식이 생기고, 함께 해결을 위해 애쓰고 좌절하는 공동의 경험이 모이니 신뢰가 차곡차곡 쌓일 것이며 이 과정을 거쳐 의미와 가치의 한겨레두레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소비자로서 개인 이익도 지키고 장례문화를 바꾸어 사회를 진일보 시키며 의미와 가치의 사업 공동체를 만드는 신나고 대단한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옆 사람에게 이 일을 전파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전국의 조합원들이여, 일어나 이 좋은 걸 널리 알리자!’ ❀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우리 조합 알기 캠페인 2탄

**“채비 웹사이트에서 우리 협동조합 미션(우리의 사명)를 찾아보시고
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단어를 보내주세요”**

*참여하신 조합원 모두에게 경품을 드립니다

참여하기

*전체 중 운영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내 슬픔에 절을 하고



지난 7월 갑작스럽게 형제를 잃었다.
 예고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다.
 일요일 새벽,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장례를 치르기까지 무슨 정신으로 그리했는가 까마득하다.
 자식 없는 제수가 외로울까 저어해 부고를 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문상을 왔다. 위로가 되었다.

입관하던 때 수의를 입은 망제는 고요해 보였다.
 얼굴을 쓰다듬었다. 울음이 터졌다.
 어디서 이런 울음이 오는지 놀랐던 가슴이 폭발하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제수는 정신을 잃었다. 올케언니가 부축했다.

화장을 하러 벽제 가는 길에 환청이 들렸다.
 밥 먹으며 나누던 이야기, 술 먹으며 하던 이야기, 친구 이야기, 형제 이야기, 부모 이야기...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으며 쿨을 설명하고, 그림에 대해 음악에 대해 시대를 넘고 세계를 날던 모습이 보였다.

망제가 누운 관이 화구로 들어갔다.
 나에게 그 사람을 불사를 권한이 있는가, 자문했다.
 내 몸 미물 쪼가리 하나하나가 함께 타들어갔다. 연기와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와 나눈 기억도 하나하나 피었다 사라졌다.
 비 오던 하늘이 개고 맑았다.

전날 제수와 아내가 찾은 <하늘안추모공원>에 유골을 모셨다.
 아침 해가 바로 드는 곳이다. 아침마다 새해를 볼 것이다.
 하늘 안에서 평안하기를.

이제 가슴에 쌓은 분노는 그만 놓아버리기를.
 하늘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재롱 떨며 유쾌하기를.
 아이가 모형 막걸리를 사서 함께 넣었다.
 매일 즐기던 막걸리가 하늘에서도 위로가 되기를.

화장하고 봉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문사에 들렀다. 생전에 어머니가 다니던 절이다.
 남들 모르게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했다. 아니다. 그의 영혼에 절을 했다.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하늘이 무너지는 천봉이라 했던가.
 형제를 여의는 것도 가슴 찢어지는 천애(天哀)다. 그러니 나에게 절을 한 것이다.
 내 슬픔에 절을 한 것이다.

49재. 영혼이 이생을 떠난다는 날. 중음신이 내생으로 들어가는 날. 7이 7번 거듭되는 날. 내 마음도 7
 번을 넘어 49번은 뒤집어졌으리라.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다. 내 어린 시절을 만들고 내 마음의 골격을 함께 만들었던 그가 이제는 없다.
 그가 형에게 보내던 응석 섞인 투정도 이젠 없다. 어디 가서 그 도끼를 맞을 수 있으랴. 전화라도 할걸.
 그 전화가 나비 효과가 되어 생이 바뀌었을 텐데.

곡을 한 날엔 노래 부르지 않는다는데, 나는 눈물로 슬픔을 가리지 않고 49일을 묵언으로 기다렸다.
 아이는 유난히 내게 살가웠다. 결코 작은 아빠를 말하지 않았다.

49재. 우리는 성정이 그와 닮은, 우직하고 웅장한 산, 지리산 실상사로 갔다.
 기차 안에는 우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제수와 아내와 아이와 나는, 그와 함께 실상사로 갔다.
 평소처럼, 그와 웃고 떠들었다. 실상을 만나는 절, 실상사는 평지에 있었다. 하늘이 넓고 컸다.
 스님의 인도 따라 우리는 그와 함께 절을 하고 다라니를 읊었다. 스님의 법언을 들었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과 차담을 나눌 때 담담하던 제수가 울었다. 나도 눈물이 나왔다.

“울어야 해요.” 누군가 말했다. “대웅전에서 울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다가 기쁘고 즐거울 때 생각난다는데, 그 기억조차 희미해지면 그가 내 앞에
 나타날는지. 윤회가 그런 것인지, 해탈이 그런 것인지.
 다음 생의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날는지. ✽

문선유 | 서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

한겨레두레와의 뜻 깊은 인연

느닷없이 엄마와의 이별을 맞이한 저로서는 경황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지병을 앓고 계시던 터라 무려 17년 동안 이 날을 대비하고 상상해왔으나 정작 닥치고 보니 깊은 슬픔으로 몸과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119 구급 대원의 전화를 받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내내 가슴이 저리고 멍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전화부터 했습니다.

저는 2012년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에 가입했고 당시엔 그저 의미 있는 단체에 후원하는 마음으로 조합비를 납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선배님인 고 허병섭 목사님의 민주 사회장에 참여했고(당시에 저는 장례 전반의 실무를 맡음), 고 박종필과 고 문동환 목사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모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엄수한 장례였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돌아해보니 조합과 저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난 절친의 장례식장에서 최대영 과장을 만났습니다. 사망하기 이틀 전에 만나서 <라라랜드> 영화를 보고 인도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건만 야속하게도 그는 젊은 나이에 생을 접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슬픔에 젖어 발인까지 참석하는 동안 장례의식 절차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유독 최대영 과장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의식 절차를 집도하고 어수선했던 슬픔을 경건함으로 만들어준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용인 평온의 숲에서 최대영 과장을 또 만났습니다.



반가움에 앞서 안도감이 들더군요.

코로나로 가족 친지들과 가족 같은 절친들만 모여 조용하게 추모하는 동안, 최대영 과장은 차분하게 모든 절차를 능숙하게 안내해 주셔서 편안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입관식에서 기어코 유가족을 울음바다로 만든 건, 최대영 과장의 정성이었습니다.

평소에 꽃을 좋아하던 엄마의 관을 개봉하는 순간 정성스럽게 깔린 형형색깔의 생화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새벽에 꽃 시장에서 장을 봐서 장례식장 한 켠에서 꽃을 다듬을 땐 유가족에게 하나씩 나눠줄 꽃인 줄 알았습니다. 12개의 연꽃 포로 시신을 묶는 작업 또한 경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반평생을 살면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원망과 회한, 화해와 사랑이 엉켜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입관식을 마치자마자 뭔가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은 장례지도사의 태도와 정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유난히 장례를 많이 치렀던 이모와 외숙모는 '이런 장례식은 처음 본다'며 몇 번씩 장례지도사를 칭찬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는 이별만큼 큰 슬픔이 있을까요.

오로지 슬픔에 집중하여 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대영 과장님 고맙습니다.

장례식도 의례적으로 치러내는 절차가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홀어머니이기에 엄마 장례 이후 조합원을 탈퇴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왠지 망설여지는 오늘입니다.❀

최영선 | 조합원

내 어머니 간병일기



5.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아들은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렸다.
아이를 낳아 길러본 적도 없으니 평생 처음 기저귀란 것을 갈아본 것이다.
간병을 하면서 형제간에 딸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아들도 딸 노릇 하면 되는구나.

어머니는 힘이 없어서 며칠 변을 못 봐 고통스러워하셨다.
기력을 찾아 드리려고 영양제도 주사하고 낮에는 유기농 포도즙을 구해다 먹여드렸다.
그 덕인지 기저귀에 시원하게 변을 보신 거다.
수술 후 열흘 만에 제법 큰 덩어리를 내보내셨으니 이제 위장이 제대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 참
으로 다행스럽다.

변을 본 기저귀를 빼내고 엉덩이를 물 티슈로 깨끗이 씻어드리니 처음에는 얼굴을 찌푸리시던 어머니
가 기분이 좋으신지 희미하게 웃으며 “미안해” 하신다.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는 저 애기 때 맨 날 갈아 주셨잖아요.”

“아냐 갈아준 적 없어. 촌에 무슨 기저귀가 있었겠니.”

아 참, 맞다. 그 시절 섬에 기저귀 같은 게 있었을 턱이 없지.
그냥 아무데나 싸지르면 어머니가 손으로 닦아내 주셨겠지.

몸은 쇠약하고 병들었어도 정신은 아들보다 더 말짱하신 어머니.
저러다 어느 날엔가 육신은 사라지고 정신만 남으시려나.
(2020. 2. 23)

8. 어미를 기르다

“내가 자꾸 아이가 돼 가는 것 같아.”

병상에 누워 아침잠 깨신 어머니.
어제는 “나 아직 살아 있냐?”고 되물으시더니 오늘은 또 아이가 되어 간다고 한탄이시다.

그리고 보니 육아(育兒)의 육이나 양로(養老)의 양이나 같은 뜻이다.
기를 육(育), 기를 양(養)
나 어려서는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더니 이제 내가 어머니를 기른다.

면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오리 죽을 끓여 떠 먹여 드리고 흘린 것 닦아드리는
양육(養育)

그렇게 또 아들이 어머니를 기른다.
(2020. 3. 7)

강제윤 | 시인

* 뉴스레터 채비는 저자의 허락을 아 그동안의 간병일기를 편집하여 4회(35~38호)에 걸쳐 게재합니다. 전문은 <https://url.kr/SWxB9X>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시대 장례사용설명서



#1

입관을 앞두고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 만나는 시간이다. 저마다 슬픔을 추스르며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다. 어느 정도 인사가 끝난 것 같아 남은 절차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작은며느리가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한다.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고인의 귀로 가져다 댄 후 녹음된 음성을 틀어 준다.

휴대전화에서는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한, 브라질에서 거주하는 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엄마, 못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 가는 길마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고마워 엄마.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제 편히 쉬어.” 딸은 흐느끼느라 말을 맺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엄마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슬픔이 절절히 느껴졌다.

#2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임종을 지키러 입국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들어올 수 없었다. 직계가족의 상이 발생할 경우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운명하지 않은 시점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1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장례식에 참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들은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대신 장례식이라도 참석하기 위해 임종 후 입국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입국한 상주를 받아주는 장례식장은 흔치 않았다. 우리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발 벗고 나서 겨우 장례식장을 섭외할 수 있는데, 그마저 고인 사망 후 상주가 입국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후 4일 만에야 겨우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릴 수 있었다.

#3

유족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다.

“상주님~ 빈소를 차리지 않으면 아쉽지 않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여쭙봤다.

“할 수 없지요. 빈소를 차리면 저희들이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직장동료나 지인들이 참석해야 할지 말지 고민할 텐데... 애초에 빈소를 차리지 않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결국 빈소를 차리지 않았다. 참관식에서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발인 예배를 진행하며 어머니의 천국 가시는 길을 배웅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예외가 아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종식된 이후에도 그전과 같은 장례식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장례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애도’에 있다.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위로 받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이전 장례식에서는 이런 애도의 과정이 실종되었다. 운명한 직후부터 유족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빈소가 차려지면 조문 받기 바쁘다. 발인하는 날은 장례식장에 비용을 정산하고, 화장장을 예약하고, 장지 계약하는 등 3일 동안 장례는 정신 없이 돌아간다. 그나마 온전히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염습을 참관하는 한 시간 남짓이 전부였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시대의 장례는 규모가 축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 부고를 하고 정신 없이 조문을 받던 시간이 오롯이 가족들끼리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다.

나는 깊이 있는 애도와 가족 간에 애뜻한 추모를 위해서는 가족 추모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추모식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도 없고 형식을 따질 필요도 없다.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고인의 사진을 함께 보고, 메모리얼포스트(고인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를 작성해 나누면 된다.

우리 조합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추모와 애도가 중심되는 장례식을 준비해왔고 올해 ‘채비’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다. ‘채비’는 추모식이 중심이 되는 혁신적인 장례식이다. 우리 조합은 가족들이 추모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 연출, 진행을 돕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례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채비 장례’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죽음과 의례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은 양면이 있다. 죽음 또한 그렇다. ✿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채우고 비우는 채비노트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곳이 어디든 마음이 서늘해진다. 서둘러 집에 돌아가 정리해두어야 할 것들이 떠오른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통장의 위치 은행 잔고부터 금전에 관련하여 꼭 처리해야 할 것들이 산발적으로 생각난다. 괜히 마음이 급해진다.

이럴 때마다 다짐하는 게 있다. 단순하게 살아야지. 일상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가급적 번다한 사건을 만들지 말아야지. 베풀고 살아야지. 따위의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마음에 덮쳐온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집에 돌아와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지 난감하다. 그러다 보니 굳은 결심은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만다.

매년 초 한 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10년 주기로 혹은 건물 취득이나 자산을 늘리는 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지막으로 될 순간을 위한 마무리 계획은 없다. 그곳이 더 이상 갈 곳 없는 벼랑으로 투신하는 일 같아서 아예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 예외 없이 마지막을 맞이한다. 지금은 미뤄둬도 괜찮은 일이지만 결국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정리해보거나 남겨질 이들에게 전할 메시지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게 좋다. 그것은 남아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 곳을 떠날 내가 스스로의 삶을 정리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기도 하다. 채비노트는 이런 생각들이 오래 쌓여서 만들어진 책이며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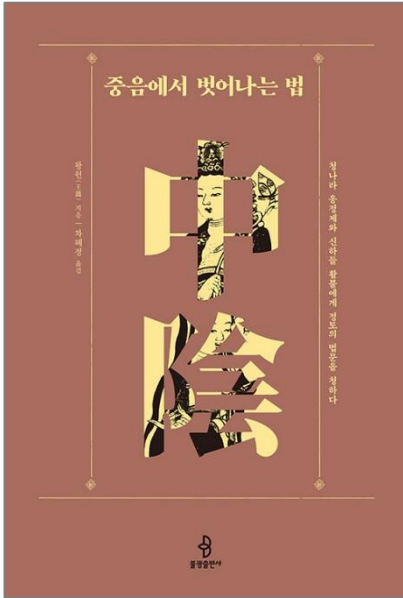
채비노트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의 ‘돌아보기’에서는 나에 대해 정리해보는 내용을 담았다.

2장 ‘보살피기’는 부모 간병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3장 ‘마음 다지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가족의 죽음 전에 작성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마지막 4장 ‘채비하기’에는 애도가 중심이 되는 추모식을 기획하는 방법과 장례 후 처리할 행정적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죽음에 대한 슬픔과 떠나 보내는 입장의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다.

우리 삶은 일상과 또 다른 일상이라는 씨줄과 날줄의 직조물이다. 한 사람의 생이 삶과 죽음이라는 단선적인 것을 잇는다면 그 안의 서사는 일상이라는 수많은 시간의 결과물인 것이다. 삶을 통해 죽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한편으로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채비노트는 충직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마지막을 제대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준비에 의의를 두었다.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과 마지막을 설계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삶을 돌아보고 남기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는 기록물이 될 것이다. ✨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 채비노트는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착불)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1800-9517)



중음에서 벗어나는 법

왕원 |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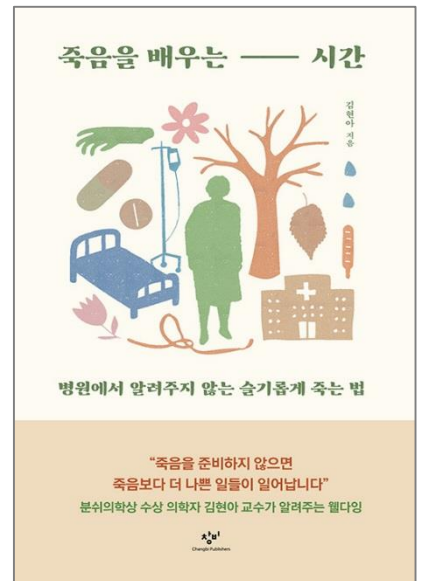
이 책의 시작은 청나라 옹정제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 연귀비가 병으로 죽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에게는 연귀비라는 후궁이 있었고 1722년 옹정제가 보위에 오르자 그녀 또한 후궁으로 책봉된다. 연귀비는 옹정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옹정제가 황위에 오른 지 3년 무렵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옹정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여인이 아픔을 안고 이승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옹정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연귀비가 좋은 곳에 태어나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옹화궁에 있던 몽골 출신 티베트 승려가 천도재를 열고 영가를 위한 법문을 시작한다. 그녀가 중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중음은 망자가 빛의 인도를 통해 다른 길로 가는 것

을 의미한다. 천도법회 기간 동안을 활용해 옹정제와 참석한 관리들에게 중음에 대해 설명하고, 중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망자를 위해 산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염불과 선(禪)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전한다. 이 책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저자가 당시 상황을 창작해서 쓴 것이다. 중음에 맞닥뜨려 망자를 위해 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뿐 아니라 중음에서 아예 해탈하기 위해서 살아생전 그리고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

죽음을 배우는 시간

김현아 | 창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최대의 사건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생일대의 사건에 대해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보다도 준비를 덜 한다.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법은 집에서 학교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저자는 현대의학이 늙음과 죽음을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호도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덜 준비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의학이 죽음을 더욱 외면하는 역설적인 시대에 살게 된 우리가 알아야 할 노화와 죽음의 의미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까지 ‘죽음 공부’의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 병원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매뉴얼로 읽어도 좋을 책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고민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떠올려보는 데 그치거나 미뤄두기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천편일률적으로 반복해 병원 신세를 지다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한국 현실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현대의학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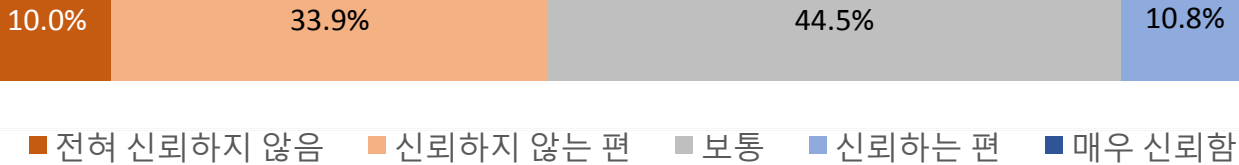
상조회사 신뢰도

1 '상조회사를 신뢰한다' 11.6%

- 상조회사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11.6%만이 신뢰한다고 응답(매우 신뢰+신뢰하는 편)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전혀 미신뢰+신뢰하지 않는 편)이 43.9%, 보통이 44.5%로, 응답자 10명 중 1명만이 상조회사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상조회사 신뢰도 (한겨레두레조합원 응답 제외. n=490)

0.8%



상조회사 미가입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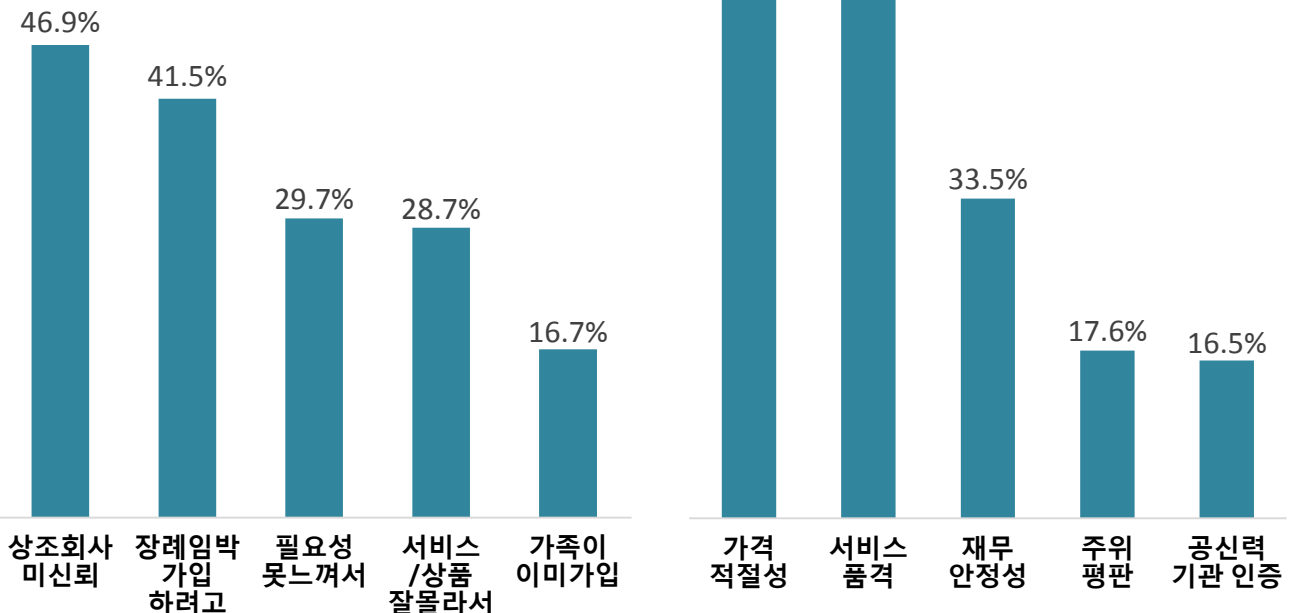
2 '상조회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46.9%

- 상조회사를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상조회사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장례임박하여 가입하려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순으로 나타남
- 상조회사 선택기준으로는 '가격 적절성', '서비스 품격', '재무안정성' 순으로 나타남

[그림] 상조회사 미가입 이유(1+2순위)

(상조회사 미가입자, n=336)

[그림] 상조회사 선택기준(1+2순위) (n=659)



*자료출처: 장례문화 혁신을 위한 인식 조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외 6개 협동조합 공동 조사. 전국 19세 이상 남녀 659명. 2020)

배한호 한의사의 '내 몸 바르게 사용하기' 온/오프 동시 강좌

- ▶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사는 동안 덜 아프고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는 내 몸을 잘 알고 있을까요? 기능과 특성을 잘 알고 주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 ▶ 잘못된 건강 상식이 넘칩니다. 먹을 거리에 대한 온갖 그릇된 정보가 난무합니다. 내 몸을 바로 알아야 처방도 정확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 ▶ 오랫동안 제대로 된 섭생을 실천해온 배한호 한의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시다.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다년간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이번 강의가 건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배한호 한의사

■ 강좌 안내

- 일정: 2020년 9월 18일(금) 오후 7시~9시
- 온라인 수강 : 채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개설)
- 현장 수강: 선착순 10명 (거리 두기 좌석 배치, 신청 02-722-9517)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강의 내용

대 상	건강한 삶을 원하는 분. 질환을 앓고 있는 분. 부모님 돌보기를 잘하고 싶은 분
목 적	내 몸을 이해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자. 내 몸에 맞는 건강계획을 세워보자. 이것을 토대로 부모님 건강관리와 돌봄의 방법을 알아보자.
프로그램	나이듦에 대하여(건강 개념과 상식) / 내 몸 이해하기 / 성인병(고혈압, 당뇨 등) 일상 케어 / 질환 별 식이요법 바로 알기 / 부모님 돌보기

■ 강사소개

한방내과 전문의, 한의학박사. 현) 배한호한의원 원장.
다수의 대학교 강의 및 공중파/종편 방송 건강 프로그램 출연
자문: 대한한 의사협회, 충남한 의사협회, 동북아평화연대, 충남정책자문회 등
저서: 독소를 없애주는 현미채식(경향BP), 천수밥상 (공저, 다운북스컴퍼니)
'배한호닷컴(<http://baehanho.com/>), 유튜브 <배한호TV>를 운영
배한호한의원 02-596-3223(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13 반포쇼핑타운 7동 3층)

채비 유튜브 채널

강의관련 사전 질문하기

*채비 유튜브 채널: <https://url.kr/D7qlmN> (유튜브에서 '채비 작고아름다운이별' 검색)

*강의 사전 질문은 master@handurae.org 로도 접수하며 질문이 채택된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공간 채비 홍보동영상 릴리즈



공간 채비 홍보동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공간 컨셉인 ‘시간의 집’에 대한 설명과 각 공간에 대한 용도와 시설, 그리고 공간 채비만의 특징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유튜브를 비롯 여러 채널에서 공간채비를 홍보하는 소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간채비 홍보동영상 url: <https://youtu.be/R0pRWKBVvuM>

스페이스클라우드 공간채비 page: <https://www.spacecloud.kr/space/27130>

공간 채비 대관신청: <https://forms.gle/z2gZgxMtgymEUik78>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설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기는 매월 15~25%의 전기요금을 절약해 주며, 20년간 제품수명을 보장합니다.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제품(한화 325W 모듈, LG인버터)만 사용하며, 간단한 시공(30분)으로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모집대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서울·경기 소재)
- 서울시 지원 금액: 44만원(서울시 보조금 39만원 + 구청보조금 5만원)
- 자부담: 조합원 부담금 5만9천원(2020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솔라테라스 <https://www.solarterrace.net>
(2018, 2019년 연속 서울시 시공 1위, 전국 실적 1위 업체)
- 신청 및 문의: 1566-3221
- A/S: 설치 후 5년(양도와 이전 가능)



① 태양광발전기 설치 준비



② 모듈 조립



③ 인버터 연결



④ 발전기 베란다로 이동



⑤ 베란다에 튼튼하게 고정



⑥ 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

* 솔라테라스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업무협약기관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장례지원사업에 후원합니다.

8월

이혜숙 조합원 시부상
박종훈 조합원 빙모상
이광표 조합원 모친상
황윤길 조합원 모친상

노경훈 조합원 부친상
김광호 조합원 부친상
유기창 조합원 빙모상
윤석위 조합원 사촌상

신임숙 조합원 시모상
이윤기 조합원 자녀상
이계령 조합원 모친상

7월

백종철 조합원 빙모상
김홍식 조합원 모친상
김진영 조합원 부친상
김재수 조합원 빙부상
이기상 조합원 부친상
정웅교 조합원 부친상

문선유 조합원 아우상
김기성 조합원 부친상
이수자 조합원 모친상
장성모 조합원 모친상
김정주 조합원 빙모상
신상희 조합원 모친상

김윤원 조합원 모친상
염규홍 조합원 부친상
박갑주 조합원 모친상
김상남 조합원 부친상
김명희 조합원 배우자상

6월

임영미 조합원 모친상
성경아 조합원 매씨상
오명철 조합원 모친상
오상석 조합원 부친상
엄홍기 조합원 모친상

백명기 조합원 배우자상
이용규 조합원 빙부상
신남희 조합원 모친상
이영주 조합원 모친상

권월선 조합원 시모상
장종익 조합원 부친상
김윤기 조합원 부친상
전부영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제 31호 | [24%의 기적]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채우고 비우고] 우리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말할 수 있을까
[장례 후기] 두 번의 장례식을 한겨레두레와 함께 했습니다

다운로드

제 32호 | [24%의 기적] 이사의 추억
[채우고 비우고] 기억과 사진
[장례 후기] 효도하는 법

다운로드

제 33호 | [24%의 기적] 어느 49재
[채우고 비우고] 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일까
[장례 후기]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장례 서비스

다운로드

제 34호 | [24%의 기적] 여러분은 조합원입니까, 회원입니까?
[채우고 비우고] 눈물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장례 후기] 벼랑 끝에서 만난 한겨레두레

다운로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